

시편 1편의 구조적 이해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

김상기*

내용의 단순함과 시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시편 1편은 끊임없이 설교자의 사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 때문에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 시편은 거의 자명한 것처럼 이해되는 것 같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텍스트 내적인 방법에 국한시킨다면 본문 이해에 중요한 개념과 어구들의 의미를 확정하고 시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문의 구조를 말하는 까닭은 구조적 이해가 본문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의미와 미적 효과 내지 감동이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텍스트의 복잡성 때문에 단일할 수 없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구조를 텍스트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제는 먼저 그 요소들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찾고, 이어서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편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어구들의 의미를 먼저 밝히고 다음에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 구조를 찾고자 한다.

1. 예비적 관찰: 어구들의 의미를 중심으로

1.1. 아쉬레이 하=이쉬(אֲשֵׁרֵי הַיֵּשׁוּ)²⁾

* 전주대학교 강사, 구약학.

1) 시편에 관한 방대한 근래의 두 논문집 E.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ETL CCXXXVIII (Leuven: U. Peeters, 2010)과 P.W. Flint and P.D. Miller, J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Leiden: Brill, 2005)은 시편의 구성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시편 1편에 관한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음역에서 ‘=’는 판사나 접속사 또는 전치사나 접미사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시편 1편을 여는 1절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로 옮겨진다.³⁾ 그러나 그 어구는 연계형으로 단순히 ‘그 사람의 복’을 의미한다.⁴⁾ 이 경우에는 그 뒤에 술어가 마땅히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어구를 문장으로 바꾸어 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또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그 명사구가 위와 같은 의미의 관용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러냐고 묻는 것은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3절 첫머리의 ‘뵤=하야(הַיָּהִי)’는 접속사 ‘뵤’(וְ)에도 불구하고 2절의 진술을 이어가지 않으므로⁶⁾ ‘아쉐레이 하=이쉬’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뵤’가 여전히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사로 이해된다면 3절은 본문 안에서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쉐레이 하=이쉬’의 의미와 기능은 ‘뵤=하야’로 시작되는 3절과 연관되어 있다. ‘하=이쉬’를 설명하는 ‘아쉐르’(אֲשֶׁר)-절을 제외하면 1-3절은 ‘아쉬레이 하=이쉬 ... 뵤=하야...’가 된다. 이 구문은 ‘뵤’를 영어의 *that*처럼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읽고 연결사(*copula*)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절은 ‘아쉬레이 하=이쉬’의 술어로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⁷⁾ 3a절은 비유로, 3b절은 그 의미 해명으로 그렇게 하

-
- 3) 『개역한글판』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라고 번역하면, 인과 관계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된다.
 - 4) ‘아쉬레이’가 명사의 연계형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절대형은 에쉐르(HALOT 100 L) 또는 여성명사 ‘아쉬라이’(JM §89J)로 서로 다르게 추정되고 있다. 또한 ‘아쉬레이 하=이쉬’에 대해 H.-J. Kraus, *Psalmen 1-59*, BK XV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⁵1978), 134는 이를 기원이나 약속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 차 사실을 확인하는 외침으로 이해한다.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하구나!” 명사 기원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Brsynt § 7a;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1. Psalm 1-41*, NSK 13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2000), 52; K. Seybold, *Die Psalmen*, HAT I 15 (Tübingen: Mohr, 1996), 28 참조.
 - 5) A. D. Rubin, “The Form and Meaning of Hebrew ‘ašrê”, *VT* 60 (2010), 366-372는 ‘아쉬레이’의 어원을 아랍어 *sry/srw*의 동족어 *šry*의 강조 용법(*Elativ*)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ašrê’의 명사적 용법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계기는 시 1:1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 6) 박동현, 『아쉬레 하이쉬. 히브리어 시편 읽기』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8), 61은 3절도 2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7) 3절을 1-2절*에 따르는 결과로 본다면, 이는 אֲשֶׁר-절이 3절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B. Janowski,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Psalm 1 als Tor zum Psalter”, *Die Welt als Schöpfung.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199-218, 특히 200-201은 3절을 1-2절에 묘사된 삶의 결과로 이해하지만, 3절을 아쉐르-절과는 분리시킨다. 오히려 그는 1-3절을 교차법적으로 이해하며 3b절이 ‘아쉬레이 하=이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b절을 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문을 구문론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아쉬레이’를 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198).

고 있다. 그러나 ‘아쉬레이 하=이쉬’를 우리 말로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로 풀어 옮기는 경우 구문 변경에 따라 ‘뵤’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옮기거나(마 5:8-11 비교)⁸⁾ ‘뵤’를 생략한 채 단순히 복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으로 옮긴다면 그 구문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1.2. 아마드(אָמַד)

‘아마드’는 ‘서다’를 뜻하지만, ‘서다’가 ‘서 있다’ 또는 ‘가다가 서다’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문맥과 어긋난다. 그것은 ‘내딛다’ 또는 ‘들어서다’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⁹⁾ 이를 따라 ‘앉지 않다’의 경우에도 ‘가 앉지 않다’로 이해될 수 있다. ‘들어서지 않거나 가 앉지 않는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다’, ‘서다’, ‘앉다’가 모두 어미변화형(AK 또는 SK, 완료형)으로 개개의 행위를 나타내고(punktuell), 부정어 ‘로’(לֹ)와 결합하여 결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과 상응한다.¹⁰⁾ ‘그 사람’은 삼차원적 의미의 공간을 악인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잠 29:13 참조. 또한 잠 16:3; 20:12도 비교), 삶의 영역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공간은 함께 나누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1.3. 베티-x 헤프쯔=오(בִּטְיָ x-גּ)

이 명사문은 주어와 술어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 술어가 강조된다. ‘다름 아닌 야훼의 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은 ‘...을 그는 즐거워하다’를 뜻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다’를 나타낼 수도 있다. 예컨대 제사와 희생을 바치는 것보다 그에게 귀기울이는 것을 야훼는 더 즐거

8) 접속사 ‘뵤’(ו) 대신 ‘키’(כ)가 올 수도 있다(시 128:1-4; 잠 8:34-35 참조. 마 5:3 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도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더 나아가 접속사 없이 연결된 x-yqt 구문이 ‘복’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왕상 10:8-9; 시 112:1-2; 127:4-5 참조). 다시 말해 이 구문은 과거-현재 어떤 조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현재-미래 또는 미래를 약속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9) 쉬운 문리역(=쉐레셰브스키 주교 역). 이 역본에 대해서는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전도서 1장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 (2011/4), 35-57 참조; R. G. Kratz, “Die Tora Davids. Psalm 1 und die doxologische Fünfteilung des Psalters”, *ZThK* 93 (1996), 1-34, 3이 그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10) P. Tagliacarne, “Grammatik und Poetik. Überlegungen zur Indetermination in Psalm 1”, W. Gross; H. Irsigler; Th. Seidl (Hgg.), *Text, Methode und Grammatik*, Fs. W. Richter zum 65. (Geburtstag: St. Ottilien, 1991), 549-557 참조.

워한다면(삼상 15:22), 이것은 헤페쓰가 대상과 연관된 것임을 의미한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릇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들 만한 것이 그 그릇에는 없음을 말한다(렘 22:28).¹¹⁾ 특히 후자는 대상이 즐거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전치사 ‘베트’(בְּ)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토라는 즐거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토라가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¹²⁾ 이 명사문이 토라를 대상으로 하는 2b절의 행위가 지속적일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¹³⁾ 전치사 ‘베트’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면 토라와 그 사람의 관계는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라는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 때문에 그는 토라를 읊조린다(הִלָּלָהּ).¹⁴⁾ 이 과정의 반복이 주야로 토라를 읊는 일을 가능케 한다.

1.4. 콤+베트-x(x-ב+מק)

‘일어서다, 일어나다’가 기본 의미인 ‘콤’(קָם)은 5a절의 ‘미쉬파트’(מִשְׁפָּט)가 암시하는 대로 여기서 법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전치사 ‘베트’는 시간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에 반대하여, ...에 맞서, ...에 적대하여’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후자가 ‘베트+사람’인 경우에만 한정되는가에 있다(참조 신 19:15-16; 시 27:12; 미 7:6; 시 35:11도 참조). 나훔 1:6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לִפְנֵי יַעֲמֹד מִי יַעֲמֹד וְיָקָם בְּרִיבּוֹן אִפּוֹ

주어(의문사)+동사와 전치사 어구가 각각 짝을 이루고 있는 이 구절은 뉘

11) 렘 22:28a의 בִּי אֵין הִפְזִין בִּי אֵין הִפְזִין는 ‘마음에 드는 것이 그 안에 없는 그릇인지’로 옮길 수 있다.
 12) L. R. Martin, “Delighting in the Torah: The Affective Dimension of Psalm 1”, *OTE* 23 (2010), 708-727, 특히 716은 예레미야 15:16에서 이 어구의 의미를 찾는다. 이것 역시 위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13) PK(Präformativkonjugation, 어두변화형=yqtl형 또는 미완료형)는 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속을 나타낸다. ‘밤낮으로’가 시간의 전체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B. Weber, “Dann wird er sein wie ein Baum ... (Psalm 1:3). Zu den Sprachbildern von Psalm 1”, *OTE* 23 (2010), 406-426, 특히 411은 동일한 근거로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전체성은 반복보다는 지속과 더 잘 어울린다.
 14) הִלָּלָהּ는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읽다, 말하다, 계획하다’ 등을 뜻한다. 여기서는 뜻을 음미하면서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HALOT 237 R 참조).

앙스를 달리하며 의미론적으로도 짝을 이룬다. 그리고 앞의 어구는 뒤의 ‘쿵+베트’를 ‘...에 맞서다, 대적하다’ 등으로 이해하게 한다. 물론 우리 말로는 이 구조를 아무 무리 없이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다.

그의 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그의 진노에? (=⇒그의 진노에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이것은 ‘쿵+베트-x’(x+כּ קוּם)의 ‘베트’(ב)가 ‘...에 맞서, 대적하여’를 뜻할 때 x가 꼭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이 구절이 심판자 야훼의 권위와 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온다는 점은 이를 바탕으로 5a절을 이해하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줄 것이다. 5a절의 ‘미쉬파트’(מִשְׁפָּט)가 ‘심판, 판결, 법’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판에 맞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판결에 맞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5b절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5a절과 5b절이 다음과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5b절도 재판이라는 문맥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일어나지 못하고 - 악인들은 - 바=미쉬파트(מִשְׁפָּט)

죄인들은 - 바=아다트 짜다이킴(אֲדָרַת צְדִיקִים)

‘그러므로’(עַל־כֵּן)를 제외하면 각각의 의미단위 수가 3이므로 양자는 표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5b절에는 5a절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된 것이 있다. 따라서 5b절을 읽을 때 이를 보충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개역』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부정어 ‘로’(לֹא)만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¹⁵⁾ ‘로 쿵+베트’(לֹא קוּם)을 모두 보충하여 5b절은 ‘로 쿵+베트-x’(x+כּ קוּם לֹא)로 읽어야 한다.¹⁶⁾ 앞에 언급된 대로 5b절이 재판정을 배경으로 할 때 ‘의인의 모임에 맞서 일어나지 못하다’는 예컨대 ‘의인의 모임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못하다’를 뜻할 것이다.

그런데 ‘에다’(עָדָה) I은 또한 법적인 공동체로서 재판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민 35:12, 24f; 수 20:6, 9 참조). 이 경우라면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

15) 박동현, 『아쉬레 하이쉬』, 68-69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P. J. Botha, “The Junction of the Two Ways.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Psalm 1”, *OIE* 43 (1991), 381-396, 특히 386도 참조.

16) 이를 따른 한글 구역(1906=1911년)이 이미 그렇게 번역했었다: “(그런고로 악한자들이 심판할 사대에 서지못하며) 죄인들이 율혼자의 회중에서 서지못하리로다”(밀줄 필자).

은 5a절의 ‘미쉬파트’가 그와 평행을 이루는 5b절의 ‘아다트 짜다이킴’(עֲדַת צְדִיקִים)에 의해 규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미쉬파트’는 ‘미쉬파트 짜다이킴’이 되고, 따라서 5a절은 “악인들이 의인들의 재판에 맞서(일어나)지 못하리라”가 될 것이다. 마치 의인들의 회중이 악인들을 재판하는 모습이다.

다른 한편 토셉타 베코로트는 ‘에다’(עֵדָה)가 ‘증언’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⁷⁾

‘짜카르 에다토’(צָכַר עֵדָתוֹ) 그의 증언에 대한 대가 (Tosefta Bekhoroth III, 8)¹⁸⁾

유대의 구전 법 미쉬나를 보충하는 그것은 220 CE 경에 수집된 늦은 시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법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이 경우라면 5b절은 악인들이 ‘의인들의 증언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가 될 것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리는지는 재판정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6a절이 5a절에 언급되지 않은 재판장이 야훼임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5-6절은 야훼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이는 마지막 것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야훼의 법정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대해 위증하거나 의인들이 단독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경우보다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¹⁹⁾ 의인들의 모임/회중이 야훼의 재판정에 어떤 자격으로 어떤 증언을 하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거기서 증언한다.²⁰⁾ 그리고 야훼는 그의 길을 ‘인정한다’.

17) M. Jastrow, *DTT*, 1043 L; J. Neusner, *Tosefta*, Vol 2 (Pealody: Hendrickson, 2002).

18) Tosefta Bekhorot 3:8 (J. Neusner, *Tosefta*, 1478).

A He who is suspected of taking a salary and judging or of taking a salary and giving testimony,

B all the judgments which he has made and all the testimony which he has given, lo, they are null.

C But one pays a fee to a judge for his time and a fee to the witness for his testimony

D Even though they have ruled, It is valid for a judge and for a witness to take a salary for his testimony(밑줄 필자). 히브리어 원문이 없어 영역을 인용하였다.

또한 ‘에도타프 브티일린’(עֲדוּתוֹ בְּטִילִין) 그들의 증언은 쓸모없다는 Mishna Bekhoroth IV, 6도 참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에두토 브티일린’(עֲדוּתוֹ בְּטִילִין)이라는 이본이 있다.

19) 성서에서 עֵדָה II(증거)는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다(창 21:30; 31:52; 수 24:27). 이에 대해서는 HALOT 790 참조. 만일 5b절의 עֲדָה가 이 עֵדָה II의 연계형이라면, 그것은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를 가리키거나 의인들 자신이 증거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Tosefta의 Bekhorot의 예를 따르는 것이 가장 나은 독법이라고 여겨진다.

20) 야훼가 이스라엘을 자기의 증인으로 소환하는 사 43:8-12 비교.

‘인정하다’는 ‘야다아’(יָדָא)의 분사 ‘요테아’(יָדְעָא)를 옮긴 것이다. 그것은 경험의 결과로 아는 것을 나타내고²¹⁾ 분사로서 지속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말이 단순히 ‘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야훼가 악인들의 길을 몰라서 그 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드러난다. 그것은 야훼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테아’는 여기서 ‘안다’보다는 ‘인정하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²²⁾ 야훼는 악인들의 길을 알고 동행하고(3b절 참조) 인정한다.

2. 구조와 사역

시편 1편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²³⁾ 이 시편을 구성하는 단위들과 그것들의 결합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도 서로 다르게 파악된다.

이제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입장은 세부적인 설명에는 차이들이 있지만 시편 1편을 ‘1-3절 / 4-5절 / 6절’로 구분한다.²⁴⁾ 이 구분의 적합성은 1-3절과 4

21) ‘야다아’(יָדָא)가 관찰의 결과 ‘인정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W. Schottroff, “יָדָא”, *ThLOT*, 512; B. Janowski,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212 참조. B. Weber, “Psalm 1 and the Psalter”, *OTE* 19 (2006), 237-260, 특히 247은 ‘알고 인도하다’(know and direct)로 파악함으로써 여기서 ‘야다아’의 의미가 단순한 ‘알다’ 이상의 것임을 지적한다.

22) 분사 ‘요테아’(יָדְעָא)는 칠십인역(γλυώσκελ)을 비롯해 영어권과 독일어권 역본들에서 ‘알다’(know: KJV, ASV, NAU; kennen: LUT, ELO, ZB), ‘보살피다/보호하다’(watch over: NRS, NJB, NEB), ‘아끼다’(cherish: NJPS), ‘주목하다’(regard: JPS, auf...achten: BB) 등 ‘알다’와 ‘돌보다’(care for)를 중심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와 달리 북경관화역과 쉬운 문리역—둘 다 웨레셰브스키 주교의 역본이다—이를 ‘희열’(喜悅)로 옮기고, 대표본은 ‘열납’(悅納)으로 각각 옮김으로써 의인의 길이 야훼에게 기쁨이었다고 6a절을 해석한다. 이로써 6a절과 2절은 짝을 이루게 되고, 특히 대표본은 ‘알다 > 인정하다 > 받아들이다’는 의미확대 과정을 반영한다. 이 중국어 역본들은 ‘요테아’를 ‘알다’(知)로 옮긴 브릿지만-퀼버슨 역과 함께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던 초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다. 한글성서에서는 게일-이원모역(1925년)이 그 말을 ‘깃버희심이여’로 옮기고 있고, 한글 구역은 ‘아시느니’로, 공동번역은 ‘돌보다’ 내지는 ‘보살피다’로, 가톨릭 성서는 ‘알다’로 각각 옮기지만, 1939년 이후의 『개역』은 구역의 ‘아시느니’를 ‘인정하다’로 고침으로써 중간입장을 취한다(시 144:3도 비교: ‘알아 주시다’). 『개역』과 대표본의 연관성을 엿보게 하는 이 번역은 재판정을 배경으로 6a절을 읽을 때 더욱 돋보이는 번역이고, 본문의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번역일 것이다. 표준새번역도 ‘인정하다’로 옮긴다.

23) 시편 1편의 구조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J. T. Willis, “Psalm 1 - An entity”, *ZAW* 91 (1979), 381-401, 특히 396-400과 C. J. Collins, “Psalm 1: Structure and Rhetoric”, *Presbyterian* 31 (2005), 37-48, 특히 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P. Auffret, “Comme un arbre...: Etude Structurelle du Psaume 1”, *BZ* 45 (2001), 256-264, 특히 258도 참조.

24) P. J. Botha, “The Junction of the Two Ways”, 387; P. J. Botha, “Intertextual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 *OTE* 18 (2005), 503-520, 특히 505-506; B. Janowski, “Freude an

절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관계는 다시 ‘로-켄’(לֹ-כֵן)의 지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3절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1-2절(기) / 3절(승) / 4-5절(전) / 6절(결)로 재구성해도 그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²⁵⁾ ‘로-켄’(לֹ-כֵן)이 ‘아쉬레이 하=이쉬’만 부정하거나²⁶⁾ 1-3절 전체를 부정한다면,²⁷⁾ 위의 구분은 설득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a절의 부정이 3b절에 국한된다면 위의 구조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4b절과 3a절이 동일한 수사법을 사용하며 서로 짝을 이루고, 1절(‘아쉬레이 하=이쉬’ 제외)과 5절이 동일하게 부정문 형식으로 각각 의인과 악인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4a절이 3b절과 연관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를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4절의 אַן כִּי ... אֵל 구문이다. אַן כִּי 다음의 부정적 비유는 그와 상관되는 לֹ의 내용으로 긍정적 진술을 기대하게 한다. 1-3절에서 이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3b절밖에 없다.²⁸⁾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한 가지 입장은 위의 틀 안에서 1-5절이 교차법 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6절은 결론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²⁹⁾ 그러나 이

der Tora. Psalm 1 als Tor zum Psalter”, *EvTh* 67 (2007), 18-31, 특히 20-21; B. Janowski,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Psalm 1 als Tor zum Psalter”, *Die Welt als Schöpfung.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199-218, 특히 200-201; B. Weber, “Psalm 1 and its Function as a Directive into the Psalter and towards a Biblical Theology”, *OTE* 19 (2006), 237-260, 238;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1. Psalm 1-41*, NSK 13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2000), 52; K. Schaefer, *Psalms*, BO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5; E. Gerstenberger, *Psalms 1-60*, FOTL 14 (Grand Rapids: Eerdmans, 1988=1991), 40; J. Goldingway, *Psalms Vol. I, Psalms 1-4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81-90. 마찬가지로 위의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는 J. T. Willis, *Psalm 1*, 397, 399는 이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1-3절(A) : 4-5절(B) // 6a절(A) : 6b절(B)의 구조를 말한다.

- 25) 김정우, 『시편주석 1』, 개정판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144, 146. 그의 이전 입장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29 참조.
- 26) P. Auffret, “Comme un arbre...”, 258 (260) 참조.
- 27) B. Janowski, “Freude an der Tora”, 20; B. Janowski,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201; R. G. Kratz, “Die Tora Davids”, *ZThK* 93 (1996), 1-34, 특히 4 참조. Kratz는 이에 따라 시편 1편을 1-3절 / 4절 / 5-6절로 구분한다.
- 28) 위에서 ‘아쉬레이 하=이쉬’의 내용을 3절에서 찾았기 때문에, 4a절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그것과 연관될 수 있다. ‘의인’이 악인과 대비해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이미 그 행태가 알려진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현재를 ‘로-켄’이라는 말로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관심사는 그들의 현재와 일치하는 그들의 미래(Ergehen)에 있다.
- 29) W. Vogels, “A structural Analysis of Psalm 1”, *Bib* 60 (1979), 410-416, 특히 411-413은 1-5절을 1-2절(A) : 3a절(B) : 3b절(C) :: 4a절(C') : 4b절(B') : 5절(A')의 구조로 파악한다. P. J. Botha, “The Junction of the Two Ways”, 388-389도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387에서 구문론적 분석을 통해 1-3절 / 4-5절 / 6절로 구분한 것을 다시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3절과 4절이 교차법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 이보다는 덜 분명하지만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Word Books, 1995), 59는 1-2절(A) : 3절(B) :: 4절(B') : 5절(A')로 이해한다. 이와 달리 M. Girard, *Les psaumes redécouverts. De la structure au sens. 1-50* (Quebec: Bellarmin, 1996), 138-139는 1절(A) : 2절(B) : 3절(C) // 4a절(A') : 4ba절(B') : 4bβ

경우에도 첫머리의 ‘아쉬레이 하=이쉬’와 끄트머리의 ‘토베드’가 서로 상반된 진술로 시편 1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만큼³⁰⁾ 6절을 따로 떼어 1-5절과 대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은 이 시편을 1-2절 / 3-4절 / 5-6절로 구분하는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³¹⁾ 그리고 형식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1절*과 5절 다음에 의인에 대한 2절과 6a절의 긍정적인 진술이 각각 이어지면서 서로 평행을 이룬다는 점도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³²⁾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문법적인 요소들과 문장 형식 그리고 내용을 경계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단위의 길이는 제외된다—구성 단위들을 찾는다면, 그것들은 ‘아쉬레이 하=이쉬’(1a절*), 이를 제외한 1절*, 2절, 3a절, 3b절, 4a절, 4b절, 5절, 6a절, 6b절 등 열 개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1a절*과 6b절), ‘...하지 않는다’와 ‘...하지 못하다’(1절*과 5절)³³⁾, ‘즐거워하다’와 ‘인정하다’(2절과 6a절), ‘...와 같다’와 ‘...와 같다’(3a절과 4b절), ‘잘 되게 하다’와 ‘그렇지 않다’(3b절과 4a절)³⁴⁾ 등과 같이 결합하여 다섯 쌍을 이룬다. 여기에는 교차법과 일부 평행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옮겨지고 나뉘진다.

1 a 복 있다! 그 사람은.³⁵⁾

-5절(A)의 구조로 이해한다. 김정우, 『시편주석 1』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143도 여기에 속한다.

- 30) W. Vogels, “A Structural Analysis of Psalm 1”, 413. 또한 P. Auffret, “Comme un arbre...”, 262도 참조.
- 31) A. Weiser, *Die psalmen*, ATD 14/1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69; C. J. Collins, “Psalm 1”, 37-48, 특히 37, 40 참조. Collins는 ‘로-켄’을 3a절의 비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으로써 3b절을 고려하지 않는다(39).
- 32)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 1-3절 / 4-6절(K. Seybold, *Die Psalmen*, HAT 1 15 [Tübingen: Mohr, 1996], 28; L. R. Martin, “Delighting in the Torah”, 711), 1절 / 2-3절 / 4절 / 5-6절(P. Auffret, “Essai sur la structure littéraire de psaume 1”, *BZ* 22 [1978], 26-45, 특히 41), 1-2절 / 3절 / 4-6절(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Pub., 2003], 69) 등 같은 입장들도 있다.
- 33) 1*절과 5절은 동일한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1*절이 악인을 준거로 의인을 묘사한다면, 5절은 야훼와 의인을 축으로 악인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 34) C. J. Collins, “Psalm 1”, 39는 3-4절을 한 단락으로 이해하지만 4a절의 לֹא־יִשְׁכַּח 을 3b절이 아니라 3a절과 연관하여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한 예다. B. Weber, *Psalms 1 and the Psalter*, 246은 3-4절을 여기서처럼 교차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의인의 삶의 방식과 악인에 대한 보응의 문맥에 각각 나오는 2a절과 4b절의 לֹא־יִשְׁכַּח 을 근거로 양자의 연관을 시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필자와 동일한 입장에 대해서는 P. C. Craigie, *Psalms 1-50*, 61 참조.
- 35) 한글 어순 때문에 이를 ‘복 있는 사람은’으로 바꾸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과 관계를 바꾸고 이 시편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 b 악인들의 꾀를³⁶⁾ 따라 가지 않고³⁷⁾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³⁸⁾
- 2 c 야훼의 법 때문에 즐거워 그의 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그 사람.³⁹⁾
- 3 d 그는 꼭 물 나뉘지는 곳에⁴⁰⁾ 심은⁴¹⁾ 나무 같으리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으리.⁴²⁾
- e 그가 하는 일은 야훼가 다 잘 되게 하시리라.⁴³⁾
- 4 e'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36) כְּעֵצַת רְשָׁעִים 은 관사가 축약된 형태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문법적 형태가 아니다.
 37) ‘가다’는 말이 홀로 쓰이면 물론 그것은 ‘어디로’라는 질문을 일차적으로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עָצָה를 ‘공동체, 모임’으로 바꿔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HALOT 866R 참조). ‘가다’는 낱말에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질문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하 22:5에는 동일한 구문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G. W. Anderson, “A Note on Psalm I 1”, VT 24 [1974], 231-233, 특히 232 참조). 또한 ‘우리와 함께 가자’(אָמְנוּ לְכָה)는 악인들의 유혹에 대한 잠 1:10-19의 권고도 참조.
 38) לַצַּדִּיק은 떠별이, 수다쟁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의미의 떠별이가 아니라 죄인과 악인의 문맥이 암시하는 대로 야훼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떠별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 10:4; 14:1; 53:1; 71:11; 사 9:8-10; 렘 5:12-13; 17:15 등 참조. 또한 시 36:1도 비교).
 39) 이 번역에 대해서는 각주 13 참조. 야훼 사랑과 그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 6:4-9; 11:13-21; 왕상 3:3 참조. 시 1:1-2의 행위들을 신 6:4-9의 행위들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S. C. Reif, “Ibn Ezra on Psalm I 1-2”, VT 36 (1984), 232-236 참조.
 40) עֵצִים은 인공 수로와 강의 지류에 모두 사용되지만, B. Weber, “Dann wird er sein”, 412처럼 인공 수로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 32:2를 제외한 시 119:136; 잠 5:16; 21:1; 애 3:48에서 עֵצִים은 물질이 인공이냐 아니냐보다는 한 샘에서 여러 갈래로 흘러 나오는 물줄기들을 가리키는 데 강조점이 있다. 특히 잠 21:1에서는 야훼의 손이 샘의 역할을 하고 왕의 마음의 여러 작용들이 그 샘에서 흘러 나오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에 비유된다. 또한 시 46:4[MT 5]에서 ‘팔계임’은 ‘강, 그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한다. ‘팔계 마임’이 여기서 지류들 가운데 임의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무’는 단수이기 때문이다 (B. Weber, 같은 곳). 이 상황은 그곳을 지류들이 나뉘지는 곳, 물이 언제나 넘치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에만 이해된다. 이러한 시상은 창 2:10-14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J. F. D. Creach, “Like a Tree Planted by the Temple Stream: The Portrait of the Righteous in Psalm 1:3”, CBQ 61 (1999), 34-46 참조.
 41) שָׁמַל은 ‘심다’(plant)를 뜻하지만, 겔 17:22-23; 19:10-13의 문맥이 시사하는 것처럼 ‘ 옮겨 심다’는 뉘앙스를 갖기도 한다.
 42) הָיָה는 완료와 미완료 모두 나타낼 수 있으나 하반절의 הִפְלִיחַ(הִפְלִיחַ)의 히필형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를 고려하여 미완료로 옮긴다.
 43) עָשָׂה에 대해서는 각주 42 참조. 행위자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를 비인칭으로 꼭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는 야훼일 수밖에 없다. J. Goldingway, Psalms Vol. I, 79 각주 c도 같은 입장이다. BHS 비평판은 이 구절을 주해(glossa)로 간주한다. H.-J. Kraus, Psalmen, 132-133은 운율을 분석함으로써 이 구절이 문맥에서 벗어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히브리 시의 운율 구조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복원되지 않는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각 문장의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3절: 2+3 / 4+2 / 4, 4절: 2 / 2+3의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Kraus가 말하는 문제가 3b절과 4a절을 분리시켜 읽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양자를 함께 읽을 때 드러나는 일정한 구조는 오히려 3b절을 본래의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 d' 그들은 한날 바람이 실어가는 겨 같으리.44)
- 5 b' 그러므로45) 악인들은 심판에 맞서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증언에46) 맞서지 못하리라.
- 6 c' 참으로47) 야훼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리라
a'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48)

3. 시편 1편의 구조적 이해

이와 같이 짜여진 시편 1편은 그 내용의 연관성을 기초로 다시 I. 1aα절*(שֹׁמְרֵי דִבְרֵי אֱלֹהִים), II. 1*-2절, III. 3-4절, II'. 5-6a절, I'. 6b절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아래 도표 참조).49)

‘아쉬레이 하=이쉬’의 ‘하=이쉬’(그 사람)를 설명하는 II는 누가 의인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설명은 철저성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낳고, 그에 대한 답은 II'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1절*이 길과 자리 그리고 운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이라면, 2절은 밤과 낮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다’가 ‘들어서다’를 뜻하므로 ‘들어서지 않다’는 말은 그 길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앉지 않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 앉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1*-2절은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과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임을 말한다. 다른 한편 악인의 꾀를 따라 가지 않는다는

44) וְהָיָה לְהֵמָּנָה의 주어는 ‘바람’(רוח)이다.

45) ‘알-켄’(그러므로)은 결론을 이끄는 말이지만, 이를 위한 근거가 1-4절에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5절은 1절에 전제된 악인들의 삶과 4절에 묘사된 그들의 미래(Ergehen)에서 도출된 진술로 볼 수 있다.

46) 70인역은 마소라 본문의 וְהָיָה에 대해 ἐν βουλήῃ라는 다른 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5절이 위에서 본대로 심판의 문맥에 있다면 그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을 따라야 할 것이다. 70인역의 독법은 וְהָיָה의 번역으로 וְהָיָה를 잘못 읽었거나 1절의 וְהָיָה וְהָיָה에 잇대 악인들과 의인들의 대조를 한층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변경일 수 있다.

47) כִּי는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48) M. Dahood, *Psalms 1 1-50*, AB (Garden city & N.Y.: Doubleday, 1965), 1-2, 6은 우가릿어 ‘drki(지배, 권력, 권좌)’에 근거하여 1절과 6절의 ‘테레크’를 모두 ‘모임’(assembly)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전환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49) 위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러한 단락의 재구분은 N. W. Lund, “Chiasmus in the Psalms”, *AJSJL* 49 (1932/33), 281-312, 특히 294ff의 구분과 가깝다. 더 나아가 그는 3-4절의 내적 관계를 위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P. Auffret, “Essai sur la structure littéraire de psalme 1”, *BZ* 22 [1978], 26-45, 28 재인용).

것은 삶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야훼의 토라에서 기쁨을 얻는 것과 상반된 짝을 이룬다. 다시 말해 의인의 삶의 원칙은 불의한 이익 추구가 핵심인 악인의 그것과 뒤섞일 수 없다.⁵⁰⁾ 따라서 의인은 삶 전체가 악인의 삶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산다(시 15; 24; 26 비교). 그는 야훼의 토라가⁵¹⁾ 기쁨의 원천이기에 토라를 밤낮으로 읊고 성찰한다.⁵²⁾ 야훼의 토라에서 삶의 힘을 얻는다. 어두운 시절이나(밤) 밝은 시절이나(낮)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비로소 복이 약속된다. 이것이 ‘아쉬레이 하=이쉬’를 ‘복있는 사람은’으로 옮길 수 없는 이유이다.

1aα절*과 4절이 ‘사람’과 ‘악인들’에 관사를 붙인 것과 달리 5-6절은 1절의 아쉐르-절과 마찬가지로 ‘의인들’과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1절과 4절의 관사 사용은 독자로 하여금 보다 특정한 범주의 규정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면,⁵³⁾ 5-6절은 이들을 더 이상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에게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일반화하여 말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더 이상 시편 세계 밖에 관객으로 머물 수 없게 한다. 특히 5절은 1-2절*에 설명된 ‘그 사람’이 의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임을 비로소 알려준다는 점에서 독자가 사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의인이란 바로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II'(=5-6a절)는 그 시기가 특징하게 규정되지 않은 재판정으로 무대

50) 잠 1:10-19는 이익 추구를 위해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악인의 꾀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51) 여기서 토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묻고 답을 찾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하지만,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속의 토라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겔 20장이 말하는 ‘지키면 생명을 얻을 야훼의 규례와 법’과 따르지 말아야 할 ‘조상들의 법’의 구분을 따라 토라를 전자의 의미로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사 29:13; 막 7:8-13 참조. 또한 시 19; 119 비교). B. Weber, “Psalm 1 als Tor zur Tora JHWHs. Wie Ps 1 (und Ps 2) den Psalter an den Pentateuch anschliesst?” *SJOT* 21 (2007), 179-200, 특히 181, 184는 ‘야훼의 토라’를 선포되고 통일되고 총체적인 그의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52) מִן־הַטּוֹרָה의 실천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F.-L. Hosfeld / E. Zenger, *Die Psalmen. Psalm 1-50*, (NEB), Würzburg 1993, 47 참조.

또한 이는 주자가 독대학법(讀大學法)에서 말한 것에 비취 이해될 수 있다.

‘단(대학을) 볼 때 ...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연구하고, 아직 입에 오르지 않았으면 반드시 입에 오르게 하고, 아직 꿰뚫지 못했으면 반드시 꿰뚫도록 하고, 이미 꿰뚫었다면 곧바로 완전히 익혀야 한다. 직접(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이 뜻이 언제나 심장과 가슴 사이에 있어서 쫓아내도 나가지 않는다면, 비로소 이 한 단락이 끝나고, 단락을 바꾸어 읽는다. 가령 이처럼 몇 단락(이 지난) 후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치/논리가 익숙해지며, 공부(몸의) 힘이 소진시킬 때(도) (마음은) 편안하며 점차 힘 얻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但看時 ... 常時暗誦默思 反覆研究 未上口時 須教上口 未通透時 須教通透 已通透後 便要純熟 直待不思索時 此意常在心胸之間 驅遣不去 方是此一段了 又換一段看 令如此數段之後 心安理熟 覺工夫省力時 便漸得力也)

53)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는 GK § 1261 참조

를 옮긴다. 거기서는 악인들이 그들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한편 땅 위의 재판정에서처럼 의인들을 치며 위증할 수 없다. 야훼가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의인(들)과 야훼의 상호 관계가 완성된다. 의인은 야훼의 토라에서 기쁨을 찾음으로써 야훼를 인정하고 야훼는 그들을 악인들 앞에서 인정한다(시 23편 비교). 의인과 야훼의 상호인정, 이것은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야훼의 백성이 되는 전통적인 신학적 목표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출 6:7; 레 11:44-45; 22:33; 25:38; 26:12, 44-45. 또한 삼하 7:4; 대상 17:22; 렘 7:23; 11:4; 24:7; 30:22; 31:1, 33; 32:28; 겔 11:20; 14:11; 34:30; 36:28; 37:23, 27; 숙 8:8; 13:9; 고후 6:16; 히 8:10; 계 21:3, (7) 참조).

이러한 II'의 경계는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오히려 I'와 상당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편이다. 양자는 5a절과 6b절, 5b절과 6a절이 각각 악인과 의인에 대한 진술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교차법적 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야훼가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악인들의 길은 그 결과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또한 5a절과 6a절, 5b절과 6b절은 각각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을 서로 대립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또 짝을 이룬다. 이처럼 I'는 II'와 이중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러한 II'와 I'의 관계는 I과 II에서는 보기 어렵다. '아쉐르'-절의 세 진술이 위에 언급된 방식으로 세분된다면 1-2절에서 1a α 절*을 제외한 1a α β 절*(אֲשֶׁר...אֲשֶׁר)과 2a절, 1a γ b절과 2b절이 각각 짝을 이루며 평행을 이루기 때문이다.

II와 II'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시간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II가 의인의 과거-현재 삶이라면 II'는 의인의 미래와 관련된다. 반면에 III은 '그 사람'과 (그) 악인들의 현재-미래와 관련된다. 양자는 각각 물 나뉘지는 곳에 심어진 나무와 바람이 싹고 가는 겨에 비유된다. 탄식시들이 그리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악인들의 폭력에 지치고 절규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탄식에 III은 답한다. 그것은 놀린 자들에게 폭력의 장에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곳으로 옮겨 심어진(שָׁתוּל)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언제까지나 권력을 누릴 것 같던 악인들에게는 한날 바람이 실어가는 겨처럼 덧없이 사라질 것을 선언한다. 이 비유들의 실제 의미는 그것에 둘러싸인 3b절과 4a절에서 밝혀진다. 3b절에 명시되지 않은 주어가 야훼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와 짝을 이루는 4a절도 마찬가지로 야훼에 관한 진술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끄실 분도 야훼요 (그) 악인들의 경우에 그리 하지 않으시리라는 분도 야훼라는 고백이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의 지배 아래 있는 현실에 대한 이같은 부정에는 그 현실이 역전되고 야훼의 정의가 실현

되는 미래상이 함축되어 있다. 이것이 야훼의 토라가 지시하고 지향하고 나누어 주는 희망이다. 야훼의 토라는 생명과 살림의 법이기 때문이다(겔 20장 참조).

이 시편은 이처럼 II → III → II'는 '과거/현재 → 현재/미래 → 미래'로 시간축을 옮기며 독자의 시선을 미래로 이끌어 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미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준다.

I과 I'는 무엇보다도 시편 한 가운데 있는 3b절과 4a절의 대비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다.

그 사람(=의인)의 복 : 형통하게 하시리라 :: 그렇지 않다 : 악인은 망하리라

이처럼 야훼의 개입과 그 결과를 전제하는 I과 I'는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을 대비시킴으로써 의인의 삶을 위로하고 권고하는 한편 악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 나아가 위의 구조는 강조점이 오히려 후자에 있음을 암시한다. 악인들의 멸망 선언이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데 기여하고 또 그것이 목적이려면,⁵⁴⁾ 이는 예레미야 23:21-22가 예언의 의미를 설파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따라서 시편 1편은 다분히 예언적이라고 할 수 있다(렘 36:3; 욘 3:10도 참조).⁵⁵⁾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달려갔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만일 내 회의에 서 있었다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로 자신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할 것이다⁵⁶⁾ (렘 23:21-22 필자 사역)

다시 말해 시편 1편은 단순히 의인과 악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각자

54) C. J. S. Lombaard, "By Implication. Didactical Strategy in Psalm 1", *OTE* 12 (1999), 506-514는 시편 1편의 의도를 '전환'(conversion)에서 찾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본다(아래 참조). 그렇지만 이것이 서술문 형식의 특성임을 그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는다. 독자를 직접 선택 앞에 세우는 명령문과 달리 서술문은 독자에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것을 그는 시편 1편의 '교육적 전략'이라고 부른다.

55) F. -L. Hosfeld / E. Zenger, *Psalms 1-50*, 46도 동일한 입장이다. 시편 1편을 지혜시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J. A. Burger, "Psalm 1 and Wisdom", *OTE* 8 (1995), 327-339 참조.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형식적 기준들인 아쉬레이-공식구, 비교, 잠언 사용은 지혜문학에 국한될 수 없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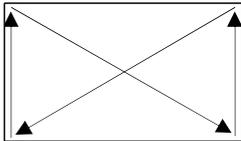
56) \square_{N} -AK + w^c-PK + w^c-PK에서 앞의 w^c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가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AK=Affirmativkonjugation, 어미변화형, qtl형 또는 완료형). w^c- \square_{N} 이하는 앞의 진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뒤의 w^c는 조건문에서 결과문을 이끄는 접속사(waw-apodosis)다. 여기서 PK는 조건문이 과거의 실제와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를 나타낸다. 이것의 뒤양스는 조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는 영어의 must 또는 would+완료형이 가능하겠지만, 전자가 문맥에 어울린다.

의 행위에 따라 복과 멸망을 선언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이것은 시편 1편의 심층 구조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4. 시편 1편의 심층적 의미 구조

이 시편의 심층 구조는 본문 표면에 드러난 대립적 가치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 그 가운데 (A) 의인, 토라, 나무, 형통, 인정, 복이 한편에 있고 (B) 악인, 꾀/계획, 겨, 쇠락(*),⁵⁷⁾ 거부, 멸망이 다른 한편에 있다.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A와 B는 각각의 부정인 \bar{A} (=A가 아닌 것)와 \bar{B} (=B가 아닌 것)가 본문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함께 전체를 이루며, 다음과 같은 ‘기호학적 사각형’을 구성한다.

A	B
의인	악인
토라	꾀/계획
나무	겨
형통	쇠락(*)
인정	거부
복	멸망



\bar{B}	\bar{A}
악인	의인
꾀/계획	토라
겨	나무
쇠락(*)	형통
거부	인정
멸망	복

57) (*)는 본문에 구현되지 않은 가치를 나타낸다.

대립적인 A와 B의 각 요소들은 모순(A와 \bar{A} , B와 \bar{B})과 포함($B \in A$, $\bar{A} \in \bar{B}$)의 관계에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변환된다. 이때 \bar{A} 는 A를, \bar{B} 는 B를 전제하고 모순은 자기 부정을 함축하고 포함은 선택을 의미한다. A는 자기 부정과 함께 \bar{A} 로 이동하고 A는 그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B로 이동한다($A \rightarrow \bar{A} \rightarrow B$). B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A로 옮겨갈 수 있다($B \rightarrow \bar{B} \rightarrow A$). 다시 말해 이러한 변환은 자동적 이행 과정이 아니라 이분법적 구별에 숨어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계기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이 변환들에는 자기 부정의 단계가 있다는 점이다. 자기 부정의 동기는 각각 토라와 피, 곧 생명과 이익으로 표상된다(위 참조). A와 B는 생명과 이익 추구에 따라서 최종 단계에서의 구별이고, 탄식하는 의인들을 위한 시편 1편의 위로는 야훼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낳고, 그 경고는 A의 현실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변환 과정은 본문이 전제하는 ‘소위소치관계’(所爲所值關係: Tun-Ergehen-Zusammenhang), 곧 사람이 한 일과 그가 겪는 일 내지 처한 형편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한다.⁵⁸⁾ 그러나 시편 1편은 예레미야 21:8이 복과 저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직접 이야기하며 독자/청중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두 길을 단지 보여줄 뿐이다. 그것은 독자를 직접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세우는 대신(신 11:26-28; 30:15-18도 비교),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앞에 서고 결정하게 만든다.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은 예언적이다.⁵⁹⁾

5. 맺는 말

시편 1편은 무엇보다도 탄식시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의인들을 배경으로 또는 먼 배경으로 하여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시편의 서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악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것들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야훼가 인정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야훼의 토라다. 토라는 현재의 고난과 억

58) 위의 용어에 대해서는 김상기, “시편 73편: 소위소치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연구』 55(2009), 8-48 참조. 그것은 ‘행위 화복 관계’로 옮기기도 한다(대한성서공회,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 부록 용어해설, 64-65). ‘화복’은 사람이 겪는 일이나 처한 형편을 대표하지만 포괄적이지는 않다.

59) 김이곤, 『시편 1』,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64, 173은 이 시편을 ‘지혜 교훈시’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규정에 난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예언적 성격에 있다.

압,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다른 것이 아닌 토라 속에서 토라를 통해 야훼는 말한다. 이것은 동시에 야훼의 침묵을 함축한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에 침묵하는 야훼는 약속으로 자신을 스치듯 드러내고 그 약속의 실현으로 침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변혁을 의미한다. 악인들이 겨처럼 속절없이 망하는 세상이다. 야훼의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시편 1편은 이 꿈을 안고 탄식시들이 그리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내고 탄식시들이 노래하는 새로운 현실을 향해 가게 한다. 이 시편은 그것을 여는 자에게 복 있는 미래를 위해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바로 그 점에서 그것은 동시에 악인들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언이기도 하다.

<시편 1편의 교차법적 구조>

I

1a절* ... 사람의 복(아쉬레이 하=이쉬)

II

1절* 악인과의 분리(아쉐르-절; 로+동사; 운동: 공간)

2절 야훼의 토라에 대한 의인의 인정 (주야: 시간)

III

3a절(의인=) 물 나뉘지는 곳에 심은 나무 같다

3b절 형통하게 하다

4a절 악인은 그렇지 않다=형통하게 하지 않는다

4b절(악인=) 바람이 실어가는 겨 같다

II'

5절(재판정에서) 의인과의 분리(로+동사)

6a절 의인의 삶에 대한 야훼의 인정

I'

6b절 악인의 멸망(아바드)

이것은 1a절*과 3b절, 4a절과 6b절의 긴밀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편 1편이 1-2절, 3-4절, 5-6절의 3연 형식으로 짜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록 느슨할지라도 첫 연의 아쉐르-절은 평행법적으로, 다른 연들은 교차법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각 연들을 상대적으로 닫힌 단락으로

만들면서 그러한 형식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구조들은 3연으로 구성된 이 시편의 표면을 넘어 그것이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더 나아가 악인의 멸망에 한층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Keywords)

시편 1편, 의인과 악인, 복과 멸망, 심층 구조, 심판과 예언.

Psalm 1,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blessedness and fall, deep-structure, judgment and prophecy.

(투고 일자: 2013년 2월 13일, 심사 일자: 2013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2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이곤, 『시편 1』,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우, 『시편주석 1』,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 박동현, 『아쉬레 하이쉬. 히브리어 시편 읽기』,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 2008.
- 이환진, “쉐레쉐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전도서 1장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 (2011/4), 35-57.
- Anderson, G. W., “A Note on Psalm I 1”, *VT* 24 (1974), 231-233.
- Auffret, P., “Essai sur la structure littéraire de psaume 1”, *BZ* 22 (1978), 26-45.
- Auffret, P., “Comme un arbre...: Etude structurelle du psaume 1”, *BZ* 45 (2001), 256-264.
- Botha, P. J., “The junction of the two ways.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Psalm 1”, *OTE* 43 (1991), 381-396.
- Botha, P. J., “Intertextual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 *OTE* 18 (2005), 503-520.
- Burger, J. A., Psalm 1 and wisdom, *OTE* 8 (1995), 327-339.
- Collins, C. J., “Psalm 1: Structure and rhetoric”, *Presbyterian* 31 (2005), 37-48.
-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Waco: Word Books, 1995.
- Creach, J. F. D., “Like a Tree Planted by the Temple Stream: The Portrait of the Righteous in Psalm 1:3”, *CBQ* 61 (1999), 34-46.
- Dahood, M., *Psalms I 1-50*, (AB), Garden city & N.Y.: Doubleday, 1965.
- Flint, P. W. and Miller, P. D. J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Leiden: Brill, 2005.
- Gerstenberger, E.,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FOTL 14, Grand Rapids: Eerdmans, 1988=1991.
- Girard, M. *Les psaumes redécouverts. De la structure au sens. 1-50*, Québec: Bellarmin, 1996.
- Goldingway, J. *Psalms Vol. 1, Psalms 1-4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Hosfeld, F.-L. and Zenger, E., *Die Psalmen. Psalm 1-50*, NEB, Würzburg 1993.
- Janowski, B., “Freude an der Tora. Psalm 1 als Tor zum Psalter”, *EvTh* 67 (2007), 18-31.
- Janowski, B., “Wie ein Baum an Wasserkanälen. Psalm 1 als Tor zum Psalter”, *Die Welt als Schöpfung. Beiträge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 Jastrow, M.,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ale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Pealody: Hendrickson, 2006.

- Kratz, R. G., “Die Tora Davids. Psalm 1 und die doxologische Fünfteilung des Psalters”, *ZThK* 93 (1996), 1-34.
- Kraus, H.-J., *Psalmen 1-59*, (BK XV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ombaard, C. J. S., “By Implication. Didactical Strategy in Psalm 1”, *OTE* 12 (1999), 506-514.
- Lund, N. W., “Chiasmus in the Psalms”, *AJSL* 49 (1932/33), 281-312.
- Neusner, J., *Tosefta*, (Vol 2), Pealody: Hendrickson, 2002.
- Oeming, M., *Das Buch der Psalmen. 1. Psalm 1-41*, NSK 13,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2000.
- Reif, S. C., “Ibn Ezra on Psalm I 1-2”, *VT* 36 (1984), 232-236.
- Rubin, A. D., “The Form and Meaning of Hebrew `ašrê”, *VT* 60 (2010), 366-372.
- Schaefer, K., *Psalms*, BO,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 Schottroff, W., עֲרֵב, *ThLOT*, 508-521.
- Seybold, K., *Die Psalmen*, HAT I 15, Tübingen: Mohr, 1996.
- Tagliacarne, P., “Grammatik und Poetik. Überlegungen zur Indetermination in Psalm 1”, Gross, W., Irsigler, H. and Th. Seidl, (Hgg.), *Text, Methode und Grammatik*, Fs. W. Richter zum 65. Geburtstag, St. Ottilien 1991, 549-557.
- Terrien, S.,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Pub., 2003.
- Vogels, W., “A Structural Analysis of Psalm 1”, *Bib* 60 (1979), 410-416.
- Weber, B., “Psalm 1 and the Psalter”, *OTE* 19 (2006), 237-260.
- Weber, B., “Psalm 1 als Tor zur Tora JHWHs. Wie Ps 1 (und Ps 2) den Psalter an den Pentateuch anschliesst?” *SJOT* 21 (2007), 179-200.
- Weber, B., “Dann wird er sein wie ein Baum... (Psalm 1:3). Zu den Sprachbildern von Psalm 1”, *OTE* 23 (2010), 406-426.
- Weiser, A., *Die psalmen*, ATD 14/15, Göttingen: Vandenhock & Ruprecht, 1955.
- Zenger, E.,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ETL CCXXXVIII, Leuven: U. Peeters, 2010.

<Abstract>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Psalm 1: Blessedness of the Righteous and the Fall of the Wicked

Dr. Sang-kee Kim
(Jeonju University)

Judging from its form and contents, this Psalm is composed of 10 long or short units, which are rather chiasmically structured: (a) V.1ac ***אֲשֶׁר־יִדְרֹאֲשׁוּ**) - (a') V.6b, (b) V.1* - (b') V.5, (c) V.2 - (c') V.6a, (d) V.3a - V.4b (d'), (e) V.3b - (e') V.4a. It is read to bring comfort to the righteous having a hard time, but at the same time, functions as a warning to the wicked on his subversion. This may be a theological point not found in complaint psalms. In this sense, it can be characterized as prophetic rather than sagacious. This would also be supported by its deep-structure, which doesn't foreclose the possibility of the wicked being transformed.

The word **עָרַה** in V.5 would be reinterpreted as a testimony in court, based on Tosefta Bekhorot 3:8, although it is a compilation of the Jewish oral law from the period of the Mishnah. If this is the case, it will provide stronger support to the reading V.5-6 from a juristical point of view. Then it will be meaningful, to translate **יָרַע** in V.6a into 'recognize' a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rather than simply 'know' or 'care for'. The righteous will finally be recognized as such in JHWH's (eschatological) Judgment.

Therefore **אֲשֶׁר־י** is a speech form, representing the promise of the changed present-future and recognized future to a person living under certain conditions of his past-present life. And when textualized, it is formulated with or without a conjunctive **וְ** or **כִּי**.